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책의 수도원’을 빛낼 ‘자서전’ 이야기

종이책이 위기를 맞았다고 걱정한다. 전자책이 상당한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출판환경의 근본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명분도 아예 상상할 재. 이런 나의 관찰은 과연 현실일까? 아니다. 책의 근본을 바로 보자. 책을 장사의 목적으로 만들고 글 쓰고 하는 일이 올바른가 생각해 보자.

출판사는 말할 것 없고, 인쇄업의 회사를 비롯한 종이책의 여러 가공시스템과 인쇄소와 제책회사들, 그리고 도서 유통회사와 서점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있다.

이제 만연해 버린, 책을 향한 우리들의 비뚤어진 양식을 돌아켜볼 때가 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기에 앞서, 이런 오늘을 가솔 한 권에서 짝을 띄우고, 그리고 그 짝을 키워 왔다.

오래 전부터 나는 종이책을 향해 들려오는 불길한 예언의 소리를 알아챘다. 그 소리가 울려 올 때마다 ‘영혼도서관’이라는 대안을 가슴 한 편에서 짝을 띄우고, 그리고 그 짝을 키워 왔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종이책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고, 그 위기는 생계의 문제와는 당초부터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책이 호황일수록, 곧 책이 잘 팔려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고, 채워진 인간의 욕망이 다시금 새로운 욕망을 부추기면서, 종이책의 위기는 가속화해 왔다.

오랜 성찰 끝에, 나는 그것이 ‘자서전(自敘傳)’임을 깨닫는다. 자서전이란 한 개인이 삶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성찰의 산

물이다. 그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진실된 성찰의 기록이기에, 그 어느 책보다도 진정성 있는 책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대에 출판되고 있는 자서전들은 과연 어떠한가. 위선과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말(言語)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량이 부족한 책이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담고 있는 내용마저 훼손하는 꼴이다.

굳이 ‘자서전’이 아니라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잘 만들어진 책이라면, 참된 자서전의 가치와 진리의 맛을 바꿀것이나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의 ‘영혼도서관’은 바로 이 같은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 이를 쫓는 도서관을 말한다.

누구든 영혼도서관에 등록을 하면, ‘참된 책’에 관해 성찰하고 궁리하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된 책을 향한 진리를 스스로 터득해 나간다.

社說

한수원, 이번에는 유령업체에 지원하다니

부실한 원전 및 부품관리로 불의를 빚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에는 한빛(영광)원전 주변 업체들에 지원한 100억 원대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 파문이 일고 있다.

운영하는 업체와 주민들에게 한수원이 진행하는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을 납품토록 하는 방식이지만 상당수가 유령업체였던 셈이다.

새누리당 이철희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0~2012년 한빛·고리·월성·울진원전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해 참여한 17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9%인 24개 업체가 한빛원전 주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파시설인 원전지역 주민과 업체에 돌아갈 예산이 유령업체에 새나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이처럼 글쓰기와 책 만들기는 깨닫는 자의 몫인 것이다. 이런 책 외에도, 우리 인류사(人類史)에 빛나는 기록문화재를 곧 ‘목민심서’ ‘난중일기’ ‘백범일지’ 등과 같은 기록들과 미래의 기록문화유산이 될 소중한 기록들을 다시 꼼꼼히 가다듬는, 곧 책을 읽히는 ‘염소(儼所)’이기도 하다.

한국의 수백만 명이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원인 규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열화당 대표)

들쭉날쭉 동물병원비 기준 마련 서둘러야

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기준이 없다 보니 의료비를 제멋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는 것

본보 취재팀이 지역 동물병원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의 경우 3만~3만5000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박종민 선생은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동포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설교하신다.

최근 반려동물의 확산으로 동물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방 동물 진료에 대한 제도도 조기에 정비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진료 관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예방동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수가 기준이 없다는 것은 관련업체와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방 동물 진료에 대한 제도도 조기에 정비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진료 관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종교칼럼

단풍의 속풍경



방길탄 원불교 나주교당 교무

켜가 생겨 염록소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게 된다. 이에 녹색의 염록소가 파괴되므로 감춰져 있던 잎 속의 다양한 색소들이 드러나게 된다.

잇몸네로부터 단풍 물결이 내려오려 한다. 산천이 팔레트로 물드는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다들 이 드라마 같은 장관을 보기 위해 삼삼오오 호호라라(好好樂樂)하며 산으로,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인 윌리엄 해밀턴은 자신의 연구실 앞 단풍을 오랜 기간 관찰해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여 적응한 공진화(共進化)다.

어찌 이 가을에 산천의 초목만 물들겠는가? 사람도 물들고, 사회도 물들고, 마음도 관계도 그리고 젊음도 늙음도 물들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다. 삶의 의지가 있다는 의미다. 인생을 단풍처럼 물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찬란한 빛깔의 색소를 만들 수 있도록 나는 건강하여 내년 봄이 오면 쓰디쓴 대사물질을 만들 것이나 나에게 침범하지 말라. 나에게 월동해줬자 네 손에다, 다른 약골이나 찾아봐라”라는 경계신호다.

가을철 단풍은 우리에게 인생이 곱게 그리고 찬란하게 물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 고통과 역경의 이겨낸이라는 진실

기고

도서관은 정보지식사회의 핵심 인프라



김삼철 광주시립도서관장

소장 장서가 무려 200만권이요, 근무자는 259명이라고 했다. 8층까지는 유아부터 연령별로 장서를 정리 배열했고 9층과 10층은 1인 또는 소그룹 연구실, 영상실 등 연구 및 문화예술포 공간으로 구성돼 있었다.

최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를 방문했다. 광저우는 중국 남방 제1의 상업도시이며 문화도시로서 광주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느 누가 이와 같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까. 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CEO 등 망라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2000억원이 있다면 과연 미래를 위해 도서관을 세워야겠다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바로 도서관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식정보사회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시민이 많을수록,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미래의 풍요로움과 지역민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식정보사회로서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에서 지속될 것이고 이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우리 학창시절에는 ‘책 속에 길이 있고 뜻이 있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지금은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고 지역사회의 발전의 소스를 찾고 시민 행복의 단초를 열기 위해서 독서가 더 필요하다.

나트륨 함유량 많은 컵라면 스프 조금만 넣으세요

야근 하거나 보통 돼 짝에서도 출출할 때 컵라면을 자주 먹는다. 바쁜 직장인, 강의시간 틈내서 먹는 대학생들, 어린이 등 우리나라 국민에게 컵라면이라는 존재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부담없이 먹는 간식이지만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간식이기도 하다.

컵라면 한 개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권장치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컵라면 스프가 워낙 짜기도 한데 우리의 식습관상 라면에 빠질 수 없는 김치까지 곁들여 먹기 때문이다.

사람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짠 컵라면을 짜지 않게 똑똑하게 먹는 요령은 무엇일까. 첫째는 김치의 짠맛이면 컵라면을 충분히 간에 맞춰 먹을 수 있으므로 김치가 있다면 컵라면 스프는 절반 이하만 넣는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無等鼓

2009년 10월 24일, 서울의 밤 공기는 샅샅함을 느낄 정도로 차가웠다. 샅샅함에서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이 열리고 있었다.

는 이 경기로 12년만에 우승컵을 거머쥐며 통산 10회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고 나지완은 이때부터 ‘나지왕’이란 별명을 얻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시간을 단축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인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가을야구(포스트시즌)가 한창이다. 넥센과 두산은 준플레이오프에서 4차전까지 매번 1점차 박빙 승부를 펼쳐 팬들을 열광시켰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광주의 어머니들은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와서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LA다저스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어 류현진의 역투를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하다.

소외된 가을야구

1사후에 타석에 선 나지완은 구원 등 관련 채병용을 상대로 6구제를 받아쳐 좌월 솔로 홈런을 때려낸 것이다.

도도 아첨이던 LA다저스의 경기를 보고 밤에는 국내야구를 보는 맛에 푹 빠져있다. 어느 해보다 볼거리가 많은 올해 가을야구를 보면서도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